

전남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 발굴 잔걸음

母펀드 3천억 조성 프로젝트 투자
여수 LNG터미널 등 5개사업 점검
기재부 협력 사업별 컨설팅 진행
“지역 민자투자 마중물 역할 기대”

전남도가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는 26일 도청에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검토 대상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어 펀드 신청을 준비 중인 여수 LNG터미널 등 5개 사업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



26일 전남도청 김연수실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검토 대상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참석자들이 펀드 신청을 준비 중인 여수 LNG터미널 등 5개 사업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간의 창의적 역량과 자본을 활용해 추진하는 것으로, 정부가 올해 도입한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정부 재정, 지

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 1000억원씩을 출자해 총 3000억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자(子)펀드 결성과 프로젝트 SPC 설립을 통해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 가능하다.

그동안 전남도는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도입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올해 7월 조직개편에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전담팀을 신설해 대상 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는박창환 경제부지사와 관련 업무 담당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 묘도 LNG터미널 건립 △완도 명품 리조트 건립 △장성 데이터센터 구축 △고흥 우주테마 리조트 건립 △해남 솔라

시도 특급호텔 건립 등 5개 사업 추진상황과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이 집중 논의됐다.

전남도는 향후 논의한 검토 사업 이외에도 추가 사업 발굴을 위해 도와 시군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기획재정부와 협력해 사업별 컨설팅도 진행할 계획이다.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지역 대규모 민자투자사업에 다시금 동력을 얻게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자체도 원하고 민간에서도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대상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전남도, 추석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 강화

전통시장·터미널 등 225곳 점검

전남도는 26일 추석 명절 다중이용시설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 225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에 나섰다.

대상 시설은 전통시장 38, 판매시설 50, 종합여객 27, 요양병원 78, 문화시설 17, 기타 15 등 225개소다. 점검반은 전남도, 시군,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민간전문가, 시설관리자 등으로 이뤄졌다.

전남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명절 귀성객과 도민이 몰리는 전통시장, 버스터미

널, 대형마트, 요양병원 등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적·적발 사항은 추석 이전 시설물 보수·정비 등 안전조치를 완료토록 할 방침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시설물 주요 구조부 균열·누수 등 결함 △소방·전기·가스시설 관리·운영실태 △비상구·복도·계단·승강기 등 피난통로 상시 확보 △시설안전 등 법적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추석 이전까지 보수·정비를 완료토록 할 계획이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뮤지컬 공연

10월28일까지 지역별 총 11회

전남도는 27일부터 오는 10월28일까지 유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유아동이 참여하는 뮤지컬 인형극 ‘스마트 댕당이 허깨비 바이러스를 막아라’ 공연을 진행한다.

‘스마트 댕당이 허깨비 바이러스를 막아라’는 최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어난 상황에서 유아의 눈높이에 맞춰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기 위해 신나는 음악과 율동으로 구성됐다.

첫 공연은 27일 오전 11시·오후 1시 2회에 걸쳐 나주 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진다. 이어 10월28일까지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 △장흥 문화예술회관 △합평 엑스포공원 △순천 문화예술회관 △여수 진남문화회관 △광양 문화예술회관에서 이어진다.

3세에서 9세 자녀를 둔 가족과 유아동 보육·교육시설 및 단체는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는 전남스마트쉼센터(061-642-1971~3)에 신청하면 된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지역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광주시는 지역 청년들에게 학자금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2024년 하반기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2017년 1학기부터 2024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누적분에 대해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한 자 △광주시 소재 대학(원)의 재·휴학생 또는 5년 이내 졸업생 △한국장학재단에서 일반 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로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국가나 타 지자체에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는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 접수는 27일부터 9월30일까지 광주시 누리집(<https://www.gwangju.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받는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소정양식), 본인 주민등록초본, 직계존속이 광주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대학 재학(휴학) 증명서 및 졸업(예정) 증명서,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이다.

이자 지원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광주시 대학인재정책과(062-613-3691)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는 서류검토, 대학자료 확인, 한국장학재단 대출정보 확인 등을 통해 11월 중 지원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자에게는 12월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계좌로 이자지원액을 입금할 예정이다.

노병하 기자



광주시의회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이 26일 광주시의회 열린시민홀에서 박미경 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등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간담회에 앞서

광주시의회 제공

전남도, 9월 첫째주 양성평등주간 행사 개최

30일 기념행사·체험·경품추첨
내달 3일 ‘최수종 토크콘서트’

전남도는 오는 9월1일부터 7일까지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기념행사 및 부대행사를 개최한다.

전남도가 주최하고 전남여성가족재단이 주관하는 기념식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남악스카이웨딩컨벤션에서 열린다. ‘함께 만드는 평등한 전남, 행복한 가족’을 주제로 한 이번 기념식은 도민 모두가 평등의 진정한 의미를 나누고 일상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행복한 전남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자는 뜻을 담았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도의회 의원과 함께 다양한 관계기관·단체, 전남도민, 가족친화인증기업 대표 등 250여 명이 참석한다.

기념식은 가족밴드 ‘예뵐’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전남도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 슬기로운 가정생활을 위한 ‘Ok Now 페어패밀리’ 영상 상영, 양성평등 다짐 퍼포먼스 등 순으로 진행된다.

‘Ok Now 페어패밀리’는 가사와 돌봄의 공정한 분담을 위한 가족생활탐구 영상으로, 공정한 가족공동체 모델 제시를 통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평등한 전남 만들기를 전파한다. 이어 오후 4시 남

악중앙공원에서는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체험·홍보보스가 운영된다. 오후 7시에는 사전 신청한 가족단위나 개인이 참여해 일상 속 성평등 실천을 다짐하는 ‘행복한 여름밤 산책’ 프로그램이 다양한 경품추첨 행사와 함께 진행된다.

9월3일 오후 1시에는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가족행복 대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강연자로 배우 최수종이 참여해 ‘소중하고 행복한 가족관계’를 이야기하며 ‘변화하는 가족, 2040세대의 가족인식 공유, 전남 행복시대 가족문화상’을 도출하기 위해 참석자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광주형일자리 선도 인증기업 모집

9월24일까지 노사상생 중기 대상
11월 선정...행·재정 혜택 등 제공

광주시는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함께 9월24일까지 ‘2024 광주형일자리 인증기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형일자리 인증은 광주지역 기업 중 광주형일자리 4대 의제(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개선)를 도입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실천 중인 노사상

생 중소기업을 발굴하는 사업이다. 올해 7회째를 맞는 광주형일자리 인증사업은 현재까지 총 28개사가 선정돼 지원을 받았다.

이번 인증기업에 선정되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의 인증기간에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신용보증료 할인 △오염물질 배출시설 환경기술 지원 △지방세 세부조차 유예 △일하기 좋은 기업 홍보 △재직자 자녀 장학금 지급 등 13종의 행·재정적 혜택과 2000만원에서 1억원의 인증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광주형일자리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9월24일까지 광주시 기업지원시스템(www.gjbizinfo.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www.gwangju.go.kr),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www.gjep.or.kr), 광주시 기업지원시스템(www.gjbizinfo.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062-960-2652)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4 광주형일자리 인증기업’은 10월부터 서류, 현장심사 등 광주형일자리 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노병하 기자